



## 2019 수능 37~42번 (비문학)

[37~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text{BIS 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geq 8(\%)$$

여기서 자기자본은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단기후순위 채무의 합으로,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위험 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이후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I'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

금융 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I'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 II' 협약이 도입되었다.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④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라면 위험가중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된다.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감독 기관은 필요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⑤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최근에는 '바젤 III'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 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바젤위원회에는 28개국의 금융 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 당국은 2009년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 시장에 보여 주어야 했던 것이다.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 금융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③ 발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② 말랑말랑한 법(soft law)의 모습**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이때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hard law)이라 부르게 된다. 바젤 기준도 장래에 **⑥ 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



## 2019 수능 37~42번 (비문학)

37. 밑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내용과 그 변화 양상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② 특정한 국제적 기준이 제정된 원인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의 규범을 감독 권한의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 ③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필요성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수용 되는 규범의 필요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논증하고 있다.
- ④ 특정한 국제적 기준과 관련된 국내법의 특징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규범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⑤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설정 주체가 바뀐 사례를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서 규범 설정 주체가 지닌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38.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약은 체결한 국가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 기존 바젤 협약에서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 ③ 딱딱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재보다는 신뢰로써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 ④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입게 될 불이익은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⑤ 세계 각국에서 바젤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자국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39. [BIS 비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젤 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BIS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 ②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 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하다.
- ③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뒤 이를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BIS 비율은 항상 높아진다.
- ④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
- ⑤ 바젤 III 협약에 따르면,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완자본이 최소 2%는 되어야 보완된 BIS 비율 규제를 은행이 준수할 수 있다.

40. 밑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 은행이 어느 해 말에 발표한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은 아래 표와 같다. 갑 은행은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바젤 II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하여 공시하였다.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이다. 그 이외의 자본 및 자산은 모두 무시한다.

항목	자기자본		
	기본자본	보완자본	단기후순위채무
금액	50억 원	20억 원	40억 원

  

항목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시장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국채	회사채	
금액	300억 원	300억 원	400억 원

- ① 갑 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을 상회하겠군.
- ② 갑 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
- ③ 갑 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 ④ 갑 은행이 바젤 I 협약의 기준으로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자산을 산출한다면 회사채는 600억 원이 되겠군.
- ⑤ 갑 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자본을 10억 원 증액한다면 바젤 III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군.

41.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젤위원회가 국제 금융 현실에 맞지 않게 된 바젤 기준을 개정한다.
- ② 바젤위원회가 가입 회원이 없는 국가에 바젤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한다.
- ③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준수 의무가 있는 바젤 기준을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다.
- ④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강제성이 없는 바젤 기준에 대하여 준수 의무를 이행한다.
- ⑤ 바젤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에서 바젤 기준을 제도화하여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42.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 ② ㉡: 8%가 넘도록
- ③ ㉢: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
- ④ ㉣: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이라는
- ⑤ ㉤: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이 될지



## 2019 수능 37~42번 (비문학)



### 지문 총평



꽤나 어려운 지문이다. 1문단에서 제시된 행동들이 마지막쯤에 회수되서 갑자기 2문단에서 다른 내용이 나와서 당황한 친구들도 있을 거다. 지문에서 요구한 행동들 중에서 꽤나 디테일하게 물어본 것들이 많았다. 딱딱한 법이나 말랑말랑한 법이라는 구체적 예시에 위의 개념들을 적용하는 것이나 바젤 협약들에 대한 엄밀한 구분과 대립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게 굉장히 힘들었을거다. 출제의 틀을 갖추고 문제를 바라본 다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이었다.



### 지문목표

첫 번째

1문단에서 글의 방향 잡기



두 번째

말랑말랑한법과 딱딱한 법에 인과관계 구체화 적용하기



세 번째

바젤 협약 대립 모든 지점 체크하기



네 번째

출제 포인트 모두 잡기



다섯 번째

선지의 쟁점 체크하기



여섯 번째

보기를 보고 모든 정보를 조건화 해보기





## 2019 수능 37~42번 (비문학)

### 문단 1

1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지문해설** 첫 문장부터 대립을 통해 우리에게 행동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대립은 항상 대립점을 기준으로 잡고 넘어가면 된다. 조약에선 명시적으로 합의에 체크하고 국제 관습법에선 조약 체결과 관계 없이 체크한다. 대립은 항상 서로의 언어로 바꿔줘야 한다. 조약은 권리와 의무의 합의가 있는 반면 국제 관습법엔 권리와 의무가 명시적으로 합의되지는 않았구나 정도로 잡으면 된다.

**문장에서의 행동** → 수직적 대립(38번 ①)

조약 ← VS → 국제관습법

권리와 의무 명시적 합의 ← VS → 권리와 의무 명시적 합의 X

2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지문해설** 방향을 어느정도 제시해줬다. BIS규제는 조약과 같이 명시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합의되어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엄격하게 지켜지냐 이 요인이 대체 뭐냐 이게 아마 글의 방향일거다.



## 2019 수능 37~42번 (비문학)

### 문단 1

3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지문해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이 어떻게 작용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지켜지는지 이걸 잡는게 지문 전체에서의 방향이다.

#### 지문에서의 행동 → 방향잡기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 구체화 잡기



### 1문단 정리

- 수직적 대립 : 조약 VS 국제관습법 / 권리와 의무 명시적 합의 VS 권리와 의무 명시적 합의 X (38번 ①)
- 방향 잡기 :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 구체화 잡기



## 2019 수능 37~42번 (비문학)

### 문단 2

1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지문해설** 요즘은 지문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이런 지문의 형태는 많이 없지만 이렇게 1문단에서 지문의 방향을 제시해놓고 다른 내용으로 들어간 뒤에 글의 후반에 방향을 회수하는 지문의 구조가 있다. 이럴 땐 앞 문단에서 나왔던 방향을 기억해줬다가 반드시 후반에 회수해야 하며 갑자기 다른 내용이 나왔다고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지문에서 시키는 행동들을 헤쳐나가면 된다.

2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지문해설** 우선 가볍게 잡자. 글의 방향이 아직 만나왔다. BIS가 뭔지만 설명해줬지 BIS에 대해 어떤 글을 쓸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할지는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차분하게 다음 글의 방향을 기다리자

3 여기서 자기자본은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단기후순위 채무의 합으로,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지문해설** 이렇게 식이 제시되고 그 요소를 설명한다는건 무조건 보기에서 계산을 시킨다는거다. 차분하게 개념을 잡아두자



## 2019 수능 37~42번 (비문학)

### 문단 2

4 위험 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지문해설** 이렇게 출제포인트가 명확하게 제시되면 우린 정해진 행동만 하고 가면 된다. 과몰입하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획일적이란 단어만 동그라미 치고 빨리 넘어가라.

**문장에서의 행동** → 대립적 어휘(39번 ①)

획일적 ← VS → 다양화

5 이후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 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지문해설** 우리에게 또 다시 행동을 제시했다. 시장 위험으로 인한 변화를 제시했으니 위의 변화 전과 변화 후를 차분하게 대립시켜주면 된다. 위에선 신용 위험만 고려했는데 이제는 시장 위험까지 고려하게 되었다는 거다

**문장에서의 행동** → 수직적 대립

변화 전 ← VS → 변화 후

시장 위험 ← VS → 시장 위험 + 신용위험



## 2019 수능 37~42번 (비문학)

### 문단 2

6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I'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

**지문해설** 또 다시 행동을 제시했다. 신용 위험의 경우랑 시장 위험의 경우를 나눴다. 위에서 보면 신용 위험은 획일적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시장 위험은 은행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정확한 대립지점을 이렇게 찾아서 대립시켜야 한다.

#### 문장에서의 행동 → 수직적 대립

신용 위험 ← VS → 시장 위험

획일적 ← VS → 은행의 선택에 따라



### 2문단 정리

- 대립적 어휘 : 획일적 VS 다양화 (39번 ①)
- 수직적 대립 : 변화 전 VS 변화 후 / 시장 위험 VS 시장 위험 + 신용 위험
- 수직적 대립 : 신용 위험 VS 시장 위험 / 획일적 VS 은행의 선택에 따라





## 2019 수능 37~42번 (비문학)

### 문단 3

1 금융 혁신의 진전으로 ‘바젤I’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II’ 협약이 도입되었다.

**지문해설** 글의 방향이 명확히 드러난다. 바젤 협약의 변화에 따라 바젤 협약끼리 각각 대립시켜주는게 우리가 잡아야 할 행동들이다. 이 부분이 문제를 잘 푸냐 못 푸냐를 가리는 중요 포인트였는데 엄밀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 잘 따라해보도록 하자

2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otimes$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지문해설** 위에선 자산의 유형은 고려했는데 신용도를고려하지 않았다. 아래의 방식에선 이제 신용도까지 고려한다는 거다. 그리고 위에선 신용 위험과 시장 위험 두 개를 언급했었는데 여기선 신용 위험에 대해서만 신용도를 추가로 고려하나보다.

#### 문장에서의 행동 $\rightarrow$ 수직적 대립(38번 ②)

바젤I	$\leftarrow$ VS $\rightarrow$	바젤II
자산의 유형	$\leftarrow$ VS $\rightarrow$	자산의 유형+ 신용도
신용 위험= 자산의 유형 + 신용도 모두 고려	$\leftarrow$ VS $\rightarrow$	시장 위험은 위와 동일

3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문해설**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을 또 구분하고 있으니 차분하게 대답시켜보자.



## 2019 수능 37~42번 (비문학)

### 문단 3

4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지문해설** 대립지점이 여럿 나온다. 우선 위에선 획일적으로 부여된다고 했었는데 여기선 0~150, 20~150으로 다양화시켜서 부과한다. 그리고 신용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는 것을 보니 신용도를 새롭게 고려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두 지점을 생각했어야 했다.

#### 문장에서의 행동 → 수직적 대립(39번 ㉓)

바젤I	← VS →	바젤II
획일적	← VS →	비율 다양화
신용도 고려 X	← VS →	신용도 고려O

5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라면 위험가중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 으로 계산된다.

**지문해설** 예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된다.



## 2019 수능 37~42번 (비문학)

### 문단 3

6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문해설** 표준모형과 대립된다. 내부모형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반면 표준모형은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거다. 추가로 더 잡아보면 이런 내용이 위에서도 나왔었다. 기존의 협약에서 시장 위험 측정방식 역시 은행의 선택에 따라 선택이 가능했다. 이렇게 공통점까지 잡았다면 베스트한 독해였다.

#### 문장에서의 행동 → 수직적 대립(39번 ㉔)

표준 모형	← VS →	내부 모형
기준에 따라	← VS →	은행 선택에 따라
바젤Ⅰ 시장위험	← VS →	바젤Ⅱ 내부모형 신용 위험
은행의 선택	← VS →	은행의 선택

7

또한 감독 기관은 필요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㉔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지문해설** 추가로 나온 부가적인 내용이다. 출제포인트만 잡고 빠르게 넘어가라 이걸 이해하려고 애쓰지마라 어차피 학생한테 안 물어본다. 그냥 인과관계만 빠르게 잡고 가라

#### 문장에서의 행동 → 인과관계 구체화 (39번 ㉔)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 규제비율 초과할 수 있음 → 자기자본의 경직된 기준 보완



## 2019 수능 37~42번 (비문학)



### 3문단 정리

- 수직적 대립 : 바젤I VS 바젤II / 자산의 유형 VS 자산의 유형+ 신용도
- 신용 위험 = 자산의 유형+신용도 모두 고려 VS 시장 위험은 위와 동일
- 수직적 대립

✔ 문장에서의 행동 → 수직적 대립(39번 ③)

바젤I	← VS →	바젤II
획일적	← VS →	비율 다양화
신용도 고려 X	← VS →	신용도 고려 O

- 수직적 대립

✔ 문장에서의 행동 → 수직적 대립(39번 ④)

표준 모형	← VS →	내부 모형
기준에 따라	← VS →	은행 선택에 따라
바젤I 시장위험	← VS →	바젤II 내부모형 신용 위험
은행의 선택	← VS →	은행의 선택

- 인과관계 구체화 (39번 ②)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 규제비율 초과할 수 있음 → 자기자본의 경직된 기준 보완



## 2019 수능 37~42번 (비문학)

### 문단 4

1 최근에는 '바젤III'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지문해설** 이전 다음 협약이 나왔다. 하나씩 대립시켜주면 된다.

#### 문장에서의 행동 → 수직적 대립

바젤I	← VS →	바젤III
기본자본+보완자본 +단기후순위 채무	← VS →	기본자본+보완자본

2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 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지문해설** 이 문장에 대한 처리가 보기 문제의 정답을 갈랐다. 위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이고 이건 기본자본의 비율이다 둘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았으면 보기 문제 계산이 잘못나왔을거다.

#### 문장에서의 행동 → 수직적 대립

바젤I	← VS →	바젤III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	← VS →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



### 4문단 정리

- 수직적 대립 : 바젤I VS 바젤III / 기본자본+보완자본+단기후순위 채무 VS 기본자본+보완자본
- 수직적 대립 : 바젤I VS 바젤III /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 VS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



## 2019 수능 37~42번 (비문학)

### 문단 5

1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바젤위원회에는 28개국의 금융 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 당국은 2009년에 가입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지문해설** 이제 바젤협약에서 빠져나왔다.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남아 있다. 앞 쪽에서 잡았던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 구체화를 잡아야 한다. 위의 문장은 그걸 이야기하기 위한 빌드업인거 같다. 우리가 찾아야 할 직접적인 답은 아니니 그냥 빠르게 읽고 넘어가라.

2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 시장에 보여 주어야 했던 것이다.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 금융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 받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지문해설** 드디어 나왔다. 아래와 같이 인과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베스트한 행동이다.

**문장에서의 행동** → 인과관계 구체화 (38번 ㉠, ㉡)

바젤 기준 따르지 않음 → 신뢰성 확보X, 국제 금융시장에 자리 잡지 못함



### 5문단 정리

- 인과관계 구체화 : 바젤 기준 따르지 않음 → 신뢰성 확보X, 국제 금융시장에 자리 잡지 못함



## 2019 수능 37~42번 (비문학)

### 문단 6

1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 한다.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㉔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지문해설** 앞에 했던 이야기 반복이다. 가볍게 읽어 내려가자

2

바젤 기준 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㉕ 말랑말랑한 법(soft law)의 모습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이때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hard law)이라 부르게 된다. 바젤 기준도 장래에 ㉖ 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

**지문해설** 우리가 배웠던 인과관계 구체화를 잘 생각해보자. 과일은 몸에 좋다랑 수박은 수분이 많다 두 문장이 나오면 수분이 많다는게 몸에 좋다는거야?라고 위의 문장을 구체화된 예시와 연결시켜 물어볼 수도 있다고 했다. 위 문장도 마찬가지다. 말랑말랑한 법과 딱딱한 법이란 구체적 예시가 위에 나왔던 어떤 내용들과 연결되는지 명확하게 구체화해줘야 한다.

### 문장에서의 행동 → 인과관계 구체화 (38번 ㉓)

말랑말랑한 법 → 권리와 의무 명시적으로 합의X, 신뢰를 통한 구속력

딱딱한 법 →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해서 규범적 성격 창출



### 5문단 정리

- 인과관계 구체화 (38번 ㉓)  
말랑말랑한 법 → 권리와 의무 명시적으로 합의X, 신뢰를 통한 구속력  
딱딱한 법 →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해서 규범적 성격 창출



## 37번

### 1번선지해설

바젤 협약의 변화 양상을 서술하고 1문단에서 제시한 신뢰를 통한 구속력을 구체화하며 국제사회에 적용되는 규범성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은 1번이다.

### 2번선지해설

국제적 기준인 BIS비율 규제가 제정된 원인은 2문단에 제시되어 있지만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는 글에 없는 내용이다.

### 3번선지해설

국제적 기준인 BIS비율이 필요한 이유는 2문단에 제시되어 있지만 상반된 관점에서 논증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 4번선지해설

장단점을 설명하는 부분은 없다

### 5번선지해설

사례 서술도 없고 규범 설정 주체가 지닌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는 부분도 지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①





## 38번

### 1번선지해설

#### 선지의쟁점

조약 VS 국제관습법

#### 행동영역

개념의 조건화, 수직적 대립

#### 해설

조약에 대한 개념을 조건화시켰다. 조약의 개념을 그대로 적어줬으니 적절한 선지다.

### 2번선지해설

#### 선지의쟁점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VS 고정되어 있다

#### 행동영역

수직적 대립

#### 해설

지문에서 바젤 123으로 대립을 시키며 세부내용들의 변경점을 구체화하고 있으니 당연히 맞는 선지다.

### 3번선지해설

#### 선지의쟁점

딱딱한법 VS 말랑말랑한법

#### 행동영역

인과관계 구체화

#### 해설

신뢰를 통한 구속력은 말랑말랑한 법이다. 이렇게 구체화된 예시에 연결을 시켜주는게 중요하다. 3번이 정답이다.

### 4번선지해설

#### 선지의쟁점

불이익 → 결정 준수 VS 불이익 → 결정준수X

#### 행동영역

인과관계 구체화

#### 해설

5문단에서 나왔던 조건화다. 쉽게 풀어낼 수 있다.

### 5번선지해설

#### 선지의쟁점

법제화 → 건전성 인정

#### 행동영역

인과관계 구체화

#### 해설

5문단에서 나왔던 조건화다. 쉽게 풀어낼 수 있다.



## 39번

### 1번선지해설

#### 선지의쟁점

확일적 VS 변동

#### 행동영역

대립적 어휘, 수직적 대립

#### 해설

신용도를 고려해서 비율을 변동시키는 것은 바젤 II다.

### 2번선지해설

#### 선지의쟁점

동일하다 VS 다르다

#### 행동영역

대립적 어휘

#### 해설

4문단 마지막에 나온 조건이다. 필요 시에 규제비율을 초과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므로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3번선지해설

#### 선지의쟁점

항상높아진다 VS 높아지지않는 경우가 있다

#### 행동영역

개연VS단정

#### 해설

국채가 0~150 회사채가 20~150이니 국채가 80이고 회사채가 60이라면 낮아지는 경우가 생긴다. '항상'이란 키워드는 반례가 하나라도 생기면 적절치 않아진다.

### 4번선지해설

#### 선지의쟁점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VS 시장 위험과 달리

#### 행동영역

수직적 대립

#### 해설

이게 디테일의 중요성이라는 거다.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문장에서 위의 대상과 연결시켜 공통점을 파악하고 갔으면 정말 쉽게 풀렸을 거다.

### 5번선지해설

#### 선지의쟁점

최소2% VS 최소6%

#### 행동영역

수직적 대립

#### 해설

비율도 잘못되었고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을 지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아예 없는 내용이다.



## 40번

### 보기조건화

$$\text{BIS비율} = \frac{50 + 20 + 40}{300 + 300 + 400} \times 100\% = 11\%$$

$$\text{회사채} \quad A \times \frac{50}{100} \% = 300\text{억}$$

$$\downarrow$$

$$A = 600\text{억}$$

$$\text{바젤III} \quad \frac{50}{1000} \times 100 = 5\%$$

### 1번선지해설

BIS비율은 11%이므로 기준인 8%를 상회한다.

### 2번선지해설

회사채 자산의 가격이 600억원이고 이를 50%에서 20%로 낮추면 120억이 된다. 분모가 작아지므로 비율 자체는 높아질 거다.

### 3번선지해설

국채의 실제 규모를 900억이라고 잡는다면 국채의 회사가중치는 30%다. 회사채의 위험가중치의 50%보다 낮다.

+) 이렇게 명확한 값이 만나와있을땐 계산하기 편한 가상의 값을 설정해야 한다. 3의 배수인 9로 600억보다 높은 값을 설정해놓은 뒤 계산해보면 된다. 실전에선 이런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는 넘어가고 나중에 봐도 좋다. 시간이 오래걸리니!

### 4번선지해설

회사채는 계산하면 600억이 된다.

### 5번선지해설

바젤 III 에서의 비율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다. 이를 계산하면 5%가 나온다 보완자본을 증액한다고 해서 변하는 값은 없다. 그러므로 보완된 기준인 6%보다 낮으니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 41번

### 7의 조건화

형식적으로 구속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 시행

⑤ 바젤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에서 바젤 기준을 제도화하여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정답⑤

## 42번

### 1번선지해설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한다는 것이니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들어가야 한다.

### 2번선지해설

적어도 8%나 바뀌려면 8%가 넘도록이다.

### 3번선지해설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금융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거니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라는 말은 대체될 수 없다

### 4번선지해설

1문단에서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으로 바꿔 쓸 수 있다.

### 5번선지해설

딱딱한 법은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의 구체화된 예시니 바꿔 쓸 수 있다.

정답③